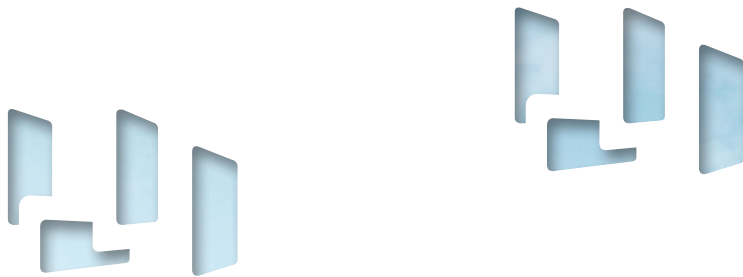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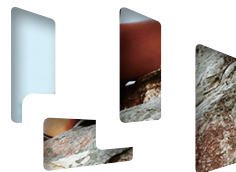


인천대학교 소식

University of Incheon Newsletter
2012 vol.55



국립대학이 날개를 달고,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



C O N T E N T S

불어라, 변화의 바람

- | | |
|----------------------|-----------------------------|
| 04 반갑습니다 | 신임 최성을 총장 인사말 |
| 06 제6대 최성을 총장 취임 | 총장 취임사
취임식 이모저모 |
| 10 Special Report | 불어라, 인천대학교에 부는 변화의 바람! |
| 13 Special interview | 인천대인들에게 들어본 '새 학기 인천대에 바란다' |

UI, PRIDE

- | | |
|----------------|---|
| 14 프런티어 UI | 제1회 대학생 안전공모전&안전스쿨 대회 대상 'MARKTOOB'
교토외국어대학교 교환학생 마나베 사키 |
| 16 Pride of UI | 이재수 동문(주)동광인터내셔널 대표)
김학만 교수(공과대학 전기공학과) |
| 18 멘토와의 1일 데이트 | 『학문적 글쓰기의 이해』 펴낸 손천택 교수와 데이트 |
| 20 Brand UI | 인천대학교 부설 숲유치원
인천대학교 산하 농업회사법인 (주)인천바이오 |

UI, WINDOW

24 UI, Poject 공간정보(GIS) 수도권 거점대학 선정

26 학과 탐방 24시 2012년 신설된 해양학과

28 우리 지금 만나 인천대학교 럭비팀 'No-side'

30 캠퍼스 갤러리 도원 류승국 박사 기증 자료실

32 UI is Now

36 발전기금 소개

37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39 발전기금 출연자

발행일 2012년 9월 14일

발행처 인천대학교 대외협력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12-1)

TEL. 032.835.8114



반갑습니다



‘국립대학’의 날개를 단 인천대학교가 꿈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존경하는 인천대학교 가족 여러분!

서른 세 살의 ‘젊은 대학’ 인천대학교는 언제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어왔습니다. 사립대학으로 개교한 인천대학교는 우리 모두의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1994년 인천시민의 지지 속에서 시립대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인천대학교는 인천시민의 여망을 가슴에 새기며 마침내 2013년 초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 새로운 등지를 틀고, 두 개의 시립대학을 통합하여 학생 수 1만5천여명의 지역거점 대규모 국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천대학교가 꾸었던 꿈은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어김없이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날개를 단 인천대학교는 이제 또 다른 꿈을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대학이 지켜야 할 근본정신과 본질적 가치를 공고히 하면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여행입니다. 교육과 연구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대학구조를 창출하여 자유와 도전이 넘치는 젊은 캠퍼스를 만들어가는 여행입니다. 기초학력과 전공지식, 외국어 능력, 품성과 역량을 갖춘 학생들로 가득한 학생중심의 대학을 창조하는 여행입니다. 기초학문과 융합학문이 공존하며 발전하는 연구체제를 정립하여 창의적 연구를 활성화하는 여행입니다. 인천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특화된 대학발전전략으로 지역의 산업과 경제, 문화,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수도권 거점대학을 향한 여행입니다. 국가가 설립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국립대학의 날개를 달고 우리 인천대학교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꿈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인천대학교 가족 여러분!

인천에 뿌리내린 대학,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대학, 세계가 주목하는 대학으로 도약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인천대학교에서 여러분도 아름다운 꿈을 마음껏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국립대학의 날개를 단 인천대학교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인천대학교 총장

최 성 은

제6대 총장 취임사

인천대학교가 역사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대학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곳은 날씨,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야 할 초대 국립인천대학교 총장이자 마지막 시립대학 총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9년 시립대학에서 출발한 우리 대학은 시립대학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국립 인천대학교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대학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우리 대학의 역동성과 도전 정신이 응축된 결과입니다. 저는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의 지난한 노력과 지역사회의 지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시립화 이후 축적된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소중한 우리의 자산으로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국립대학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성찰하면서 제2의 창학을 위해 혁신적 대학 구조를 창조함으로써 거점 국립대학의 면모를 갖추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봉착하게 될 문제 역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며, 대처하기도 쉽지 않고,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2의 창학이라는 과제를 성공시키는 것은 저의 당위적 소명임을 깊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힘든 선택을 해야만 하고 그러한 선택을 통해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집단적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제에 무책임하다면 향후 백년, 이백년 지속될 인천대학교의 역사에서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제2의 창학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지식을 창출하는 대학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 인류는 네트워크화, 첨단 과학 기술 사회화, 글로벌화라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대학의 당면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신자유주의적 대학운영으로 대학의 근본 정신과 존립 가치가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서 대학운영에서 우선되는 것은 대학의 본질적 가치와 기능을 충실히 다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엄격한 과학적 방법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인천 지역사회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지식 담론을 선도하는 대학을 만드는데 진력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 연구, 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혁신적인 대학 구조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창출할 수 없는 대학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날 대학의 엄혹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 그리고 행정의 혁신이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교육혁신의 기본 방향은 글로벌 시대의 변화를 수용

하고 예측하며, 미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며, 연구 역량의 혁신 방향은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이 공존 발전할 수 있는 연구체제를 정비하여 창의적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 등 대학운영 방식을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의 질 향상과 연구 역량의 혁신적 제고에 필요한 조치를 세심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교육과 연구,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이 공존 발전할 수 있는 통합적 학사 조직과 연구체제의 구축이 그 핵심적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거점 국립대학에 꼭 필요한 단과대학 및 학과의 증설과 개편, 그리고 연구소 체제의 대단위 학문분야 별 통합 등을 통하여 융복합 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입니다. 신입교수의 대폭적인 충원 역시 필요합니다. 행정체제는 이러한 혁신적 학제 구상에 조응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셋째,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의 제고입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단과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단과대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법인 전환 후 교육 관련 예산 권한을 단과대학으로 점진적으로 이관하겠습니다. 중앙부서는 전략 기획, 평가, 조정의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학과와 단과대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강화하여 그 책임성을 대폭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이 인천의 거점 종합 국립대학으로 뿌리 내리는 일입니다. 우리 대학은 시민들이 만들어 주신 인천의 대학입니다. 저는 인천 지역 사회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대학 발전 전략을 모색하여 지역의 산업과 경제, 문화,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가 당면한 불안한 재정 문제도 지역사회의 협조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과 연구를 혁신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건설함으로써 우리 대학이 시민 여러분의 대학으로 뿌리 내린다면 우리를 둘러싼 난관은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역사적 전환점에 우뚝 선 우리 인천대학교는 우리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인천대학교가 역사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저는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의 지난한 노력과
지역사회의 지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시립화 이후 축적된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소중한 우리의 자산으로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2012년 8월 28일

인천대학교 총장 **최성을**

제 6 대 총 장 최 성 을 박 사

인천대학교
University of Incheon

2012. 8. 28(화) 11:00



“초대 국립인천대 총장으로 새로운 역사 창조할 것”

제6대 최성을 총장 취임식 현장

취임식 통해 당면목표 등 공약 내세워

지난 8월 28일 인천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 임명된 최성을 총장의 취임식이 인천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태풍으로 인한 곳에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이성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신학용 국회의원, 문병호 국회의원, 홍영표 국회의원, 김학준 전 인천대총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취임식을 빛냈다. 신임 최성을 총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물리학 석사를, 미국 알라바마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천대학교에는 1991년 조교수로 발을 디딘 이후 교수협의회장, 학생처장을 거쳐 지난 5월 직선을 통해 제6대 총장으로 선출됐다.

최성을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야 할 초대 국립인천대학교 총장이자 마지막 시립대학 총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시립화 이후 축적된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소중한 자산으로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신임총장은 또 “제2의 창학을 위해 혁신적 대학 구조를 창조함으로써 거점 국립대학의 면모를 갖추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서 “힘든 선택을 해야만 하고 그러한 선택을 통해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집단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최 신임총장은 이를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지식을 창출하는 대학 ▲교육, 연구, 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한 혁신적인 대학 구조 창조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제고 ▲인천의 거점 종합 국립대학으로의 정착 등을 당면목표로 내세웠다.

취임식

대강당(23호관)



인천시장을 비롯한 각계인사들의 축하 이어져

최성을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각계인사들의 축하도 이어졌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인천대가 국립법인화가 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성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역시 “인천대가 인천시를 넘어 국민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 성장할 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프라노 유미자 초빙교수가 가곡 ‘내 마음의 강물’과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의 왈츠’를 축가로 불러 축하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어 연수구립 관현악단의 연주 ‘희망과 영광의 나라’를 끝으로 취임식이 마무리됐다. 이후 화단에서 예정되어 있던 기념식수 행사는 태풍으로 인한 기상 악화로 연기되었고 바로 오찬이 진행됐다. 교수회관 1층에서 열린 취임 오찬에서는 떡 케이크 절단식과 건배제를 통해 다시 한번 최성을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최성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대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힘차게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최성을 총장은 지난 7월 29일을 시작으로 2016년 7월 28일까지 4년간 총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인천대학교는 내년 1월 시립대학에서 국립대학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최성을 총장은 시립대 마지막 총장이자 국립대 초대 총장은 물론, 초대 국립대 법인이사장을 맡게 된다.



불어라, 인천대학교에 부는 변화의 바람!

인천대학교에 부는 세 가지 바람이 캠퍼스를 휘감고 있다. '2013년 국립대학 출범'이라는 반갑고도 큰 변화의 바람을 시작으로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을 만들어주는 '인천대 창업지원단', 친환경 캠퍼스로 물들이는 '그린캠퍼스' 선정까지. 인천대를 더욱 청량하고도 드넓게 만드는 시원한 세 가지 바람에 몸을 실어보자.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든든한 발판

»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준비위원회

인천대학교에 새롭고도 힘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바로 인천대가 서울대, 카이스트, 울산과기대에 이어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이 확정된 것. 인천대학교와 인천 지역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국립대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였고 드디어 그 결실을 맺었다. 국립대 전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교수와 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큰 변화의 중심에는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준비위원회가 있다. 교외인사 6인과 총장을 포함한 교내인사 5인, 총 1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미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이러한 법인준비위원회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꼽고 있는 것은 바로 소통이다. 현재

인천대학교는 재정지원과 관련해 인천시와 함께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법인설립실무추진단의 경우 교내·외 소통을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대는 국립대학 전환을 맞아 제2의 창학을 위해 혁신적 대학구조를 창조함으로써 거점국립대학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자 한다. 엄격한 과학적 방법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지식담론을 선도하는 대학, 글로벌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예측하며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키우는 대학, 기초학문과 융합학문이 공존·발전할 수 있고 창의적 연구가 활성화되는 대학,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는 인천대를 지향하고 있다. 인천대는 국립대 전환으로 자율적인 대학운영이 가능해졌다.



인천대학교가 세계 속의 학교로 거듭남과 동시에 인천대학교만의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초석이 세워지고 있다.

One-Stop 창업 길라잡이

»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예비창업자 발굴부터 창업 교육, 창업 및 사회화 지원까지 One-Stop으로 창업을 지원해주는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011년 3월 2일 중소기업청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만든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부분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설립되었다.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인 PPSUB(Promotion Program of Start Up Business)은 창업공간과 창업자금,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7개의 창업강좌가 운영되는 것은 기본이고, 해외 창업탐방부터

기술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술창업아카데미까지 개설되어 있다. 또한 각 창업동아리에는 멘토 교수가 지정되어 교수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며 활동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창업활동 지원 결과 2012년 상반기에만 37명의 창업자를 배출했다. 이외에도 인천대 창업지원단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무료 창업강좌를 실시하는 등 창업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창업발명캠프'와 고등학생을 위한 '비즈쿨 창업강좌'를 비롯해 '여성 창업강좌', '시니어 창업강좌', '사회적기업 창업강좌'까지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창업지원단의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재학 중 현실경제가 요구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졸업 후 자신의 진로를 보다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학생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오늘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대 창업지원단, 인천대에 부는 창업의 바람은 앞으로도 꾸준히 많은 이들의 꿈을 만들어 갈 것이다.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인천대

» 인천대학교 그린캠퍼스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친환경 캠퍼스를 표방하는 그린캠퍼스로 인천대가 선정되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을 주관하는 그린캠퍼스는 세계적 화두인 지구온난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학도 동참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총 22개의 대학이 신청한 가운데 인천대를 비롯한 총 5개 대학이 이번 '2012 그린캠퍼스 사업'에 선정되었다.

인천대는 녹색성장 정책을 대학에 반영해 녹색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 교정 구축,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녹색성장 기여 등 녹색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연간 4천만 원의 재정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에 인천대는 건물별 에너지량 측정시스템 도입 및 운영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녹색경영 로드맵 수립과 성과모니터링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그린캠퍼스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저감 동아리 지원 및 '녹색대사' 선발, '에너지 지킴이' 봉사단 발족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내온도 동절기 18℃, 하절기 28℃유지 및 개인컵 이용홍보, 이면지 재활용 노트쓰기 및 제작, 대학주요 행사 시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의 실질적인 활동이 수반된다.

이러한 활동으로 학생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건강한 캠퍼스 생활을 영위하게 됨은 물론 차세대 녹색리더 양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그린캠퍼스 선정을 계기로 인천 지역사회와 연계해 녹색성장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이다.

인천대 국립대법인화로 자율적 대학운영과 탄탄한 재정 확충이 가능해집니다



Q 현재 국립대학 법인준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1월 17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금년 6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같은 법 시행령(안)을 입법에 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안)은 정부 각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중이며, 9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8일 법률이 발효됨으로써 국립인천대법인으로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Q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재정지원 확보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나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 등에 따라 국가가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경상경비·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2006년 4월 3일 맺은 양해각서(MOU)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기본입장만을 밝히고 있고, 인천광역시 또한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대학의 재원지원 규모를 축소하려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지원 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연계하며 교과부·기재부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고자 노력중입니다.

Q 정관을 만드는 일에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법인설립 추진과정의 교내·외 소통을 위해서 현재 법인설립실무추진단 공식홈페이지 개설 등 다양한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의 원활한 의견개진 및 수렴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정관, 학칙, 규정 등의 주요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통간담회를 지속해, 10월 중에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정관(안) 등에 대해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국립대법인화로 인해 인천대에 예상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까지 대학 운영이 인천시 설치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것과 달리 국립대법인화로 자율화 됨에 따라 유연성 있으면서도 자율적인 대학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비만 넘긴다면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재정지원 확보는 물론, 다양한 경로로 재정확충 또한 가능해집니다. 교수급여체계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석학의 인재 유치도 수월해지고, 재정규모의 확대로 장학 복지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대에 바람~ 바람~ 바람~

새 학기 인천대에 바란다!

5
국립대 법인화, 모든 구성원들의 권익이 보호되길!
김용민(불어불문학 교수, 교수협의회 회장)

인천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합니다. 법률이 명시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이 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와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충분한 재원확보를 위해 모든 구성원의 노력과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1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김영훈(전자공학 09)

저는 여름방학 동안 학교 시설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시공 시 잘못된 곳이 있는지 고장난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시설 조사를 하다 보니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의실이나 교육시설은 너무 좋은데 음식점이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3
도서관 열람실, 주말에도 개방됐으면 좋겠어요!
김진영, 김성희(수학 12)

기행 동아리 회의가 있어서 학교에 나왔어요. 전복 부안으로 갯벌과 염전체험 여행을 떠나거든요. 학교에 바라는 점은 도서관 열람실이 주말에도 개방되었으면 해요. 주말에 좀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 도서관에 오고 싶는데 평일에만 이용할 수 있어 아쉬워요. 그리고 학생식당에 메뉴가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6
학생, 교수, 직원이 하나가 되는 캠퍼스로!
김형기(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인천대학교지부장)

국립대법인화 과정에서 재정지원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은 학생과 교수, 직원이 처음 인천대에 발을 내딛을 때의 초심으로 하나 되어 나아간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천대 졸업생들이 중요한 인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과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나무를 많이 심어 교정이 더욱 푸르러지기를!
박은샘(정치외교 08)

복수전공으로 미국통상을 이수 중이라 도서관에서 살고 있는 여름방학입니다. 외무고시 준비 중인데 궁극적으로는 UN에서 군비감축파트에서 핵무기 감축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옛날 제물포 캠퍼스 시절보다 학교에 나무가 많이 많아 아쉬워요! 나무를 많이 심어 교정이 더욱 푸르른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4
졸업선배들과 인맥인프라를 만들어주세요!
윤중섭(경제 06)

증권사 취업을 준비하며, 경영대 증권투자동아리 Argonauts(아르고나우츠)에서 주식과 경제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의 조언이 절실한데요, 학교 차원에서 졸업한 선배들과 재학생을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세요.

7
단결만이 살 길이다!
김원섭(전국대학노조 인천대지부장)

법인 출범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고 이를 위해 집행부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소중한 자산은 구성원들의 단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단결된 우리의 의지만이 외부환경의 도전과 저항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대학구성원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제1회 대학생 안전공모전&안전스쿨 대회’ 대상

건강과 지성을 겸비한 팀,
MARKTOOB

체육학부 학생들이 결국 일을 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제1회 대학생 안전공모전&안전스쿨 대회'에서 전국 30여 팀을 제치고 당당히 대상을 수상한 것! 1등을 차지한 'Marktoob' 팀을 만나기 위해 학과연구실에서 찾아가보았다.

‘신의 뜻대로’ ‘노력과 열정이면 OK!’

7월 4일 '제1회 대학생 안전공모전&안전스쿨 대회'가 열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홍진배, 천은구 교수의 지도 아래 이상목(체육학부 09), 정현우(체육학부 10), 정민선(운동건강학부, 10), 심민정(운동건강학부 11) 학생으로 이뤄진 Marktoob 팀이 여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Marktoob팀은 전국 공과대 학생 중심의 총 30여 팀 중 유일한 체육학부 학생들로, 공사 현장에서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트레칭’을 경쾌한 음악과 쉽고 효율적인 동작들로 선보이며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대학원생과 대화 중 안전공모
전에 대한 정보를 듣고는 ‘이거다!’ 생각했죠. 눈여
겨 봐온 친구들이 있기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

니다.” 학창 시절의 좋은 추억과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고민하던 천은구 교수는 공모전 소식에 서둘러 팀 꾸리기에 나섰다.

“교수님의 제의를 듣고는 바로 승낙했어요. 기말고사와 생활체육자격증 시험이 있었지만 특별한 경험을 쌓고 싶었거든요.” 팀의 주역인 정민선 학생의 말이다.

“안전을 위한 스트레칭을 주제로 삼았기에 현장에서 촬영은 필수였죠. 무작정 카메라를 들고 성남 상하수도처리장을 찾아갔어요.” 정현우 학생은 당시를 회상한다.

“대상 수상은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을 알아준 신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팀명의 재해석이기도 한 천은구 지도교수의 말처럼, 이번 대상 수상은 팀원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였다.



인천대학교, 꿈을 위한 새로운 무대

“외국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 특히 한국과 대만, 멕시코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 꿈을 위해 언어 공부만이 아닌 교육 실습을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교 일본어학과에서 수학하고 있는 마나베 사키(교토외국어대학교, 3학년) 학생의 말이다. ‘언어’를 넘어 ‘교육’을 익히고 실습하고자 한국에 왔다는 그녀는, 덧붙여 “인천대학교는 캠퍼스도 크고 학과, 학생들도 많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 좋아요”라고 말한다. 실제 그녀는 일본어학과 친구들과 외에도 경호학과, 디자인학과 등 여러 친구들과 ‘버디(단짝)’라 부르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한국은 같은 학년이라도 나이가 많으면 존칭을 씁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낯선 것이 많아요. 하지만 흥대와 곱창, 소주는 좋아해요.” 학과 수업시간에 직접 강의를 선보이며 교육에 열정을 다하는 그녀는 “외국에서의 교육은, 외국의 문화에 맞춰서”라고 강조한다. 흥대와 곱창, 소주는 사실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한 그녀만의 노력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꿈과 열정으로 뚝돌 뚝돌 그녀지만, 알고 보면 ‘원피스’ 등의 만화를 좋아하고, 부산 친구와 ‘여행’을 계획하는 발랄한 여대생이다. 다만 꿈을

‘교토외국어대학교 교환학생’ 교류협정으로

세계 속 일본어 선생님을 꿈꾸는, 마나베사키

우리 학교는 현재 25개국 152개 대학 1개 기관과 국제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우리 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대학생이 부지기수다. 특히 세계를 무대로 일본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마나베 사키(일본어학과, 3학년) 학생. 그녀의 희망찬 도전기를 들어보았다.

위해 자신의 대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에서 새로운 도전을 실천하고 있는 것뿐이다. 즉, 그녀에게 인천대학교란 단순히 ‘한국의 대학교’가 아니었다. ‘꿈을 위한 새로운 무대’였다.

마나베 사키 학생의 꿈, 그 끝은 알 수 없지만 시작점은 알 것도 같다. 교환학생 지원서를 쓰며, 한국에 입국하며, 우리 학교 정문을 넘어서며 스스로 꿈을 향해 첫발을 내딛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출발선에 선 그녀의 희망찬 도전이 아름다운 성과로 이뤄질 수 있기를 응원한다.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주)동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재수 동문(무역학과 81학번)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한 번쯤 들어봤을 여성패션브랜드 ‘SOUP’, ‘VISIT IN NEWYORK’ 등 7개의 브랜드를 보유한 중견패션기업 (주)동광인터내셔널 대표 이재수. 국제상사에서 수출의류생산 업무로 사회생활을 시작 30대에 임원직에, 현재는 중견패션기업의 오너의 자리까지 온 이재수 대표의 성공 노하우를 공개한다.

운이라 말하는 겸손함 뒤편, 그의 열정과 신념이 있다

이재수 대표는 1998년 (주)동광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ZPZG(지피지기)’ 브랜드를 런칭해 패션업계에 성공신화를 쓰며 중견기업의 초석을 만들어냈다. 그런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해 그것도 첫 브랜드부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운이 좋았던 거 같라며 겸손하게 말문을 연다.

“사실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 실력은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한 점일 겁니다. 그리고 기회란 것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수없이 많이 온다는 것을 믿고 평소 지속적인 자기관리와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행동했던 것이 성공의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년간 매일 아침 집근처 대모산을 한 시간씩 오르며 건강관리는 물론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이런 그의 평소 습관이 IMF이후 국산브랜드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분석, 첫 사업인 ‘ZPZG’를 성공시켰던 원동력이 되었다.

요즘 젊은이들이 눈앞에 보장된 것에만 몰려드는 점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반대 방향인 거 같다는 이재수 대표. 평소 자신만의 꿈을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생각하고 준비하고, 행동하

는 것’이야말로 성공 열쇠라고 고백하는

이재수 대표는 오늘도 동광인터내셔널을 한국의 샤넬로 만든다는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전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스템의 파이오니아

인천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김학만 교수

국내 전기공학자 1세대인故 한만춘 교수가 한국 전기공학계의 발전에 공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후학들이 제정한 상인 춘강학술상. 올해로 27년째를 맞는 이번 춘강학술상에 인천대학교 김학만 교수가 선정되었다. 20년 가까운 시간동안 오로지 전기 분야에만 매진해 온 김학만 교수의 연구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개척해 온 공로를 인정받다

“이 분야 발전을 위해서 더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제27회 춘강학술상을 수상한 전기공학과 김학만 교수의 짝막한 수상 소감이다. 춘강학술상은 매년 공학 분야에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연구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김학만 교수는 ‘멀티에이전트 기반의 자율적인 마이크로그리드 운용을 위한 새로운 수정된 계약망 프로토콜’이라는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96년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원으로 시작해 2008년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지금까지 오로지 전기 분야 연구에만 매진하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력 분야 발전을 개척해온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은 셈이다.

김학만 교수 논문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이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소규모 단위(학교, 빌딩, 아파트 단지 등)의 전력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멀티에이전트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들의 협조 프로토콜을 개발한 것이다. 즉, 사람 대신 전력 시스템을 운용하는 인공지능 Agent를 두고 이들이 소규모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

“요즘 재정난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환경 문제가 사회적 문제

로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전력 가격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환경에 놓이고, 소규모단위에서 신재생전원이 사용되고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들이 개발 보급되면 기존의 전력 수요자가 전력을 받아쓰는 입장이 아니고 만들어 쓰고 팔 수 있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력저장장치를 이용하면 값싼 시간에 전력을 샀다가 비싼 시간에 전력을 팔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개념 하에서 인공지능 Agent는 24시간 가동하며 가장 경제적으로 전력을 사고파는 등 가장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전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멀티에이전트 기반의 자율적인 마이크로그리드 운용에 있어서 세계 2위 그룹에 속할 정도로 세계적인 위치에 있는 김학만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 저장장치 ·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전력 분야 기술을 꾸준히 연구해 그 분야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석유를 보유한 나라가 에너지 강국이었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주도할 미래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그에게서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가길 자신감이 느껴진다.



지식기반사회를 향한 건강한 만남

『학문적 글쓰기의 이해』 펴낸 손천택 교수와 데이트

작년 『학문적 글쓰기의 이해』를 공동집필한 손천택 교수(59. 체육교육)에게 원성연(체육교육 11) 학생과 박상봉(스포츠교육학 박사전공 수료, 서울영본초교 교사) 선생이 학문적 글쓰기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데이트를 신청했다. 젊음과 성숙이 만난 데이트의 현장을 지상 중계한다. 두 시간여 동안 학문 그리고 삶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지면의 한계로 한 대목만 싣는 점이 아쉽다.

박 교수님, 먼저 『학문적 글쓰기의 이해』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학부생일 때 이 책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저와 같이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은 글쓰기 능력이 중요한데 아직 역량이 부족해 논문을 쓰는데 두려움이 많습니다. 수필이나 생활에서 쓰는 글은 학문적 글쓰기 방식과 달라 논문을 쓰는 데는 다른 논문의 패턴을 읽히거나 벤치마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이 책을 접했다라면 지금보다 질 높은 연구 성과물을 만들어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 교수님, 저는 1학년 때 교수님의 이 책으로 수업을 받았는데요. 이

수업을 들었기에 다른 수업을 듣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체육교육과 교수님이신데 이런 책을 공동집필하신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손 지금은 학문 통섭의 시대잖아. 최근 학문들 사이에 놓인 경계를 무너뜨리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분야 등을 통합하여 인간과 사회와 자연 현상을 해석하려는 통섭이 시대정신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담론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학문연구를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하는데 소통을 위해서는 ‘학문적 글쓰기’가 기초라고 생각했어. 학문 연구에서 글쓰기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학부 1학년 때 글쓰기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놓았지. 사실 이 책은 지속적으로 글쓰기 강의를 진행한 것을 책으로 묶은 것이야. 권재술 교수(자연과학), 이성흠 교수(사회과학)와 함께 저술한 것은 통섭의 시대정신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지.

지식은 생산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

박 글쓰기의 원론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좋았는데 실질적인 글쓰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방법과 함께 예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후에 워크북 형식의 책을 집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손 지식기반 세계를 살아가면서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해야 하는 당위성에도 원론중심의 교재 집필에 머물렀던 것은 나 역시 아쉬웠지. 멀지 않은 시기에 학문적 영역에서 사례 중심의 워크북 같은 책을 집필하도록 노력하겠네.

박 벌써 기대되는데요? 요즘 연구의 윤리성이 더욱 강조 되는데요, 표절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글을 썼다가 표절 시비가 붙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러한 윤리적 문제까지도 상세히 다루고 있어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더욱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례 중심의 워크북에 대한 기대, 윤리적 글쓰기 부분 강조되어야

원 교수님께서 지금 시대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교수님 강의는 다른 수업과 달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이끌어내어 문답형식으로 강의를 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저도 아르바이트로 초등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소통의 달인(?)이 되셨나요?

손 오늘 아침에 읽은 신문의 칼럼을 이야기하면 답변이 될까? 노나라에 '공명의'라는 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소를 보고 그 하는 일에 고마움을 느껴 거문고를 쳐주었지. 그런데 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풀만 뜯고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모깃소리, 송아지 울음소리를 흉내 내었지. 그러자 소는 발굽 소리를 내며 소리에 반응하더라는 이야기. 결국, 대상에 따라 흥미를 이끄는 소리는 따로 있다는 것이지. 강의시간 중에 스마트폰

고라고 하는데 난 진동으로만 해놓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봐. 오히려 스마트폰을 강의에 직접 활용하려고 하지. 지식 창조는 공유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생각하네. 그래서 끊임없이 소통하려 노력하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원만하고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

박 교수님은 많은 시간을 책상에 앉아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혼자 많은 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을 때 고독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이에 대한 극복 비결이 있으신가요? 또한, 바쁜 시간에도 수영, 골프, 등산, 자전거 등 다양한 운동을 하고 또 악기도 다루시는데요, 그 많은 것은 어떻게 다 하세요?

손 우리 삶을 너무 지식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삶의 질을 높이려면 다양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식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 건강과 문화와 지식이 소통하는 삶을 살고 싶어. 난 체육선생이기 때문에 지적역량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건강생활에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 이런 삶의 다양성의 기반위에 정서적으로 건디는 훈련을 통해 고독을 극복하는 것 같아. 이어령 선생님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 '책상'이라고 하더군. 나에겐 가장 소중한 두 가지 물건이 있네. 하나는 침대. 하루의 1/3을 침대에서 보내기 때문이지. 잠을 꼭 자야 정신이 맑다. 또 하나는 의자. 책상을 사고 마음에 드는 의자를 사기 위해 두 달을 소비했을 정도지. 건강을 지켜주는 침대와 연구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의자가 내가 교수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네.(웃음)

원 저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손 균형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사회는 너무 한 가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 체육교육과 학생이라면 '운동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동만'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 한국이 생활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왜 행복지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할까, 이것이 내 고민이야. 이것은 삶의 균형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의 기반위에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 풍요롭고 질 높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네.



박상봉 선생(이하 박)



손천택 교수(이하 손)



원성연 학생(이하 원)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 최초 인천대학교

숲유치원



“사마귀가 옷을 벗었어요?” “이파리가 되게 커요!” “이 버섯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인천 청학동의 청량산에 가면 아이들의 심 없는 질문과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계절 내내 진행되는 인천대학교 숲유치원의 수업 때문이다. 교재대신 곤충도감을 든 선생님과 키 작은 아이들이 청량산의 숲을 누비는 풍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 시원하고 상쾌한 풍경을 만들어가는 숲유치원을 찾아가 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숲유치원

“독일의 숲유치원은 1993년 플렌스부르크에서 최초로 선보이며 큰 호응을 이끌어냈죠. 독일에서 공부할 당시, 숲유치원을 보고는 세계적인 호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지붕이 되고, 숲이 교실이 되는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인 이명환 소장(숲유아교육연구소)은 자연에서만 볼 수 있는 아이들의 웃음을 이야기한다. 독일의 숲유치원을 통해 이를 확인한 이 소장은 ‘아이들의 웃음이 피어나는 숲’을 모토로 숲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그런 자연 속 웃음이 끊이지 않는 유치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소장의 ‘웃음’을 내세운 숲유치원은 2009년 국내 최초로 설립되었다. 현재 숲유치원은 만 4~5세 혼합반으로 25명의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다. 특히 김은숙 원장(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을 비롯해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수학중인 3명의 선생님이 교육에 힘쓰고 있다. 숲유치원 건물은 청량산 밑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이는 대피소의 역할만 할 뿐 문과 벽이 없는 숲이 아이들의 교실이며 주 활동무대이다.

간단히 숲유치원의 걸어온 길을 짚어보면, 2009년 녹색교육 활성화를 위해 북부지방산림청과 인천대학교(당시 안경수 총장) 간 업무협약을 맺으며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숲유치원의 녹색교육을 위





쉽 없이 변화하는 살아 있는 공간, 숲에서
아이들은 자연과 뒤엉켜 마음껏 웃고 또 웃
는다. 자연에서만 볼 수 있는 아이들의 웃음
이 숲유치원을 운영하는 원동력이었다.

해 서울국유림관리소와 숲유아교육연구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우리 학교에
숲유치원이 문을 열게 된 것.

자연의 변화를 가르쳐주고픈 이 소장의 바람대로 숲유치원은 방학을 제외하곤
한 번의 쉽도 없이 아이들을 숲으로 인도했다. 이는 이 소장 연구실을 가득 메
운 아이들의 사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숲유치원이 문을 연 것은 2009년 8
월 26일이었다. 꼭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사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체험한 아
이들의 사진들이 연구실과 숲유아교육연구소를 가득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 탓에 아이들은 나무를 기어오르거나, 사마귀를 관찰하거나, 무당
벌레를 쓰다듬는 등 마음껏 자연을 느끼고 즐길 줄 아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
다. 쉽 없이 변화하는 살아 있는 공간, 숲에서 아이들은 자연과 뒤엉켜 마음껏
웃고 또 웃는다. 자연에서만 볼 수 있는 아이들의 웃음이 숲유치원을 운영하는
원동력이었다.

사회성과 창의성, 살아 있는 교육의 현장

“우리 숲유치원에는 왕따나 고자질 등이 없어요. 아이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죠. 일반 유치원에서 많은 선생님이 다녀갔는데, 오시는 분들마
다 아이들의 태도에 놀라워해요.”

김은숙 원장의 말 그대로, 아이들은 처음 보는 곤충을 봤을 때처럼 서로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선생
님을 찾기보다 스스로 대화를 나누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나중에는 선생님을 찾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대화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문제는 부모님이다. 일반 유치원이 아닌 숲에 보냈으니 걱정할 만도 하다. 하지만 김 원장은 아무
리 초조해하던 부모도 3개월이 지나면 함박 미소를 머금은 아이들의 총알 같이 쏟아내는 일과에 걱정은
커녕 감사의 말을 들려주게 된다고 말한다.

자연의 힘은 위대하다. 아이들의 교육적인 면에선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위대한 자연의 힘도 올바른 안
내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숲유치원의 특별함은 바로 여기서 확인된다. 올바른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
하는 ‘규칙’이 바로 그것이다.

매 수업에 앞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규칙을 들려준다. ‘자신의 팔보다 긴 나뭇가지는 잡지 말 것!’ ‘갈림
길이 나오면 다른 친구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려줄 것!’ ‘리본이 묶인 곳에선 멈출 것!’ 등이 그 것
이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며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즐거운 수업을 만끽한 아이들은, 이를 계기로 아이
들끼리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습관을 갖게 됐다.

자연이 전하는 위대한 교육의 힘, 나아가 올바른 안내자인 ‘규칙’을 아는 아이들. 숲유치원의 특별함은
무엇보다도 창의성과 사회성을 길러주며 자연과 살아숨쉬는 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다.



신의 물방울 와인, 인천대학교에서 만들다

인천대학교 산하 농업회사법인 (주)인천바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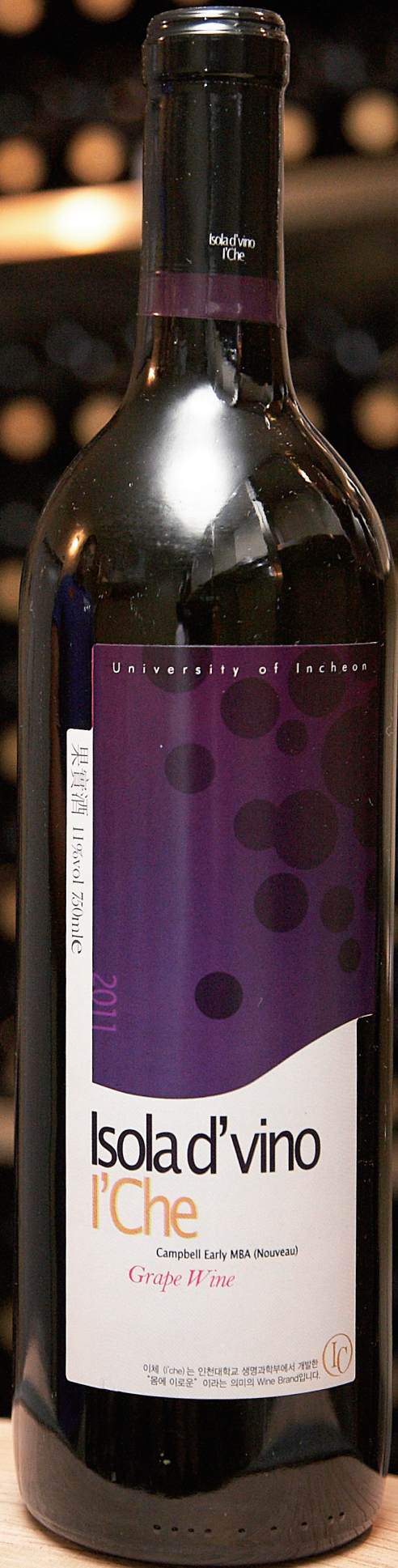
지난 3월 각종 일간지에 인천바이오에서 만든 와인 '이슬라데비노 이체'가 시판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와인? 우리나라에서? 물론, 국내생산 시판 와인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후상 와인제조용 포도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사에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와인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건배주로 개발되었다고 하니 그 히스토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바이오를 설립하고 와인개발부터 시판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 이태수 교수(63. 생명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이슬라데 비노 이체, 개발 스토리가 궁금하다

3년 전인 2009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에 유치된 직후 인천시로부터 건배주 개발을 제안받았다. 조건은 인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원료여야 했다. 먼저 술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인천시 생산 농산물을 조사했다. 몇 개월의 조사 끝에 무의도에서 포도가 재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달려갔다. 섬에서 자란 포도이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았다. 개발이 가능하다 싶어 그 길로 연구실에 박혀 와인개발에 몰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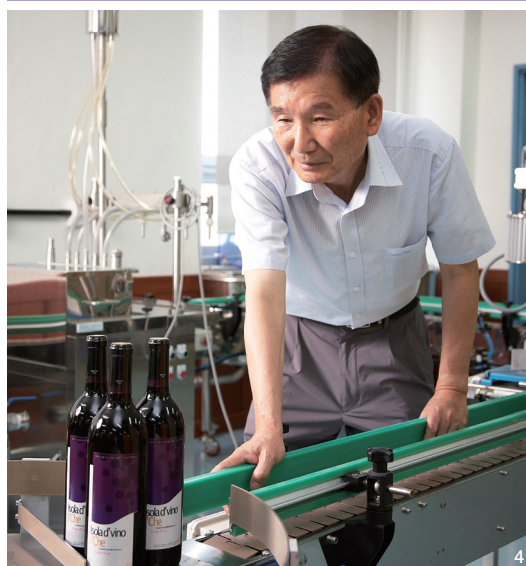
Q 우리나라 기후상 와인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시련도 많았다. 일단 와인을 만들기에 무의도 포도가 당도가 떨어졌다. 보통 외국 와인의 당도가 24° Bx 이상인데 우리나라 포도는 17° Bx밖에 되지 않았다. 당 첨가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은 순수한 와인이라 할 수 없어 당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연구 끝에 포도수분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설탕을 섞지 않고도 시간과 온도를 조절한 발효기술에 대한 특허에 탄력을 받아 와인생산에 돌입했고 작년 8월 인천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인 (주)인천바이오가 설립된 것이다. 무의도에서 포도를 생산하는 농민들과 수매계약을 맺으니 인천 농가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해진 순간이었다. 포도는 척박한 땅에서 뜨거운 태양을 받으며 자라야 품질과 영양이 좋다. 무의도는 섬이라 토양의 물 빠짐이 좋다. 그래서 무의도 포도는 수분이 적어 당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포도와 우리의 특허기술이 만났기에 품질 면에서 뒤지지 않는 포도를 만들 수 있었다.





이솔라데 비노 이체(Isola d'vino l'che)는 스페인어로 몸에 좋은 섬 포도주라는 뜻으로 인천대와 교류협정을 맺은 스페인 말라가 대학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구입은 인천바이오(T.032-835-8943)에서 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은 2만 원이다.



- 1 2011년 생산 포도로 5천병을 만들 수 있다. 현재 1천병 병입을 마쳤으며 4천병 분은 오크통과 스틸통에서 저온 숙성중이다.
- 2,3 인천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주)인천바이오는 인천대학교 내 연구동에 와이너리 시설을 갖추고 포도 파쇄부터 병입, 라벨작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만들었다.
- 4 이솔라데 비노 이체생산을 주도한 이태수 교수

Q 산학 협력 회사인데 인천대학교 학생들 취업계획이 궁금하다

‘이솔라데 비노 이체’를 만드는데 생명과학부 학생들의 도움이 컸다. 와인은 사람의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생산품이다. 학생들이 포도를 파쇄하고 압착, 발효하는 등 다양한 과정에 참여했다. 이번 겨울 방학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 과정에 학생을 투입할 예정인데 인턴제를 실시하여 이 과정을 통해 관련 산업 진출에 힘을 것이다. 또한, 주스와 잼 생산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데 생명과학부와 생물공학부 학생들의 실습에 관련 과정을 교과 실습과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Q 주스와 잼 제조 사업에 진출한다니 인천바이오의 비전이 궁금하다

와인 제조는 시작이었다. 궁극적으로는 인천지역 내 농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식품을 만드는 것이 인천바이오의 목적이다. 와인은 오래 숙성할수록 그 품질을 인정받는다. 와인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산을 지속하기로 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또 새로운 생산 품목을 찾아야 했다. 와인생산의 단점은 1년에 한 번 밖에 생산할 수 없는 점이다.

사계절 생산이 가능한 아이템이 무엇일까 고심 끝에 주스와 잼을 생산하기로 계획했다. 이번 가을 학기 중으로 주스와 잼 생산설비를 완료할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아이템을 개발하여 인천바이어를 성장시킬 계획이다. 인천바이오는 인천시 경제, 인천대학교 학생의 성장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학협력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공간정보(GIS) 수도권 거점대학 선정’

실질적, 효율적인 GIS 교육 현장

우리 학교는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올해 공간정보(GIS) 거점대학으로 선정됐다. 특히 8월 6일부터 5일간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BM컨텐츠관(정보전산원)에서 실시된 기초교육과정은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교육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간정보 거점대학 지원사업’

이번에 선정, 운영 중인 ‘공간정보 거점대학 지원사업’은 공간정보(GIS)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학교를 비롯해 사업에 선정된 12곳의 대학은 2012년 7월 10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최근 국가의 공간정보정책이 그동안 구축한 국가공간정보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그 활용을 촉진하고 있는 만큼 자치

단체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실무 중심형 공간정보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인천대학교 공간정보 교육 연구팀에서는 ‘공무원·교사·산업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개발, 지원체계를 특성화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 학교 ‘공간정보 거점대학 지원사업’을 주관한 도시과학대학 도시환경공학부 이용창 교수의 말이다. 이 교수의 말처럼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는 GIS 교육은 지자체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산업체 임직원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력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8월 6일부터 5일간, 2013년 1월 7일부터 5일간에 걸쳐 기초과정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어 2013년 1월 21일부터 5일간은 응용과정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초과정에 참여한 이광원 씨(유원측량설계사 대표이사)는 “이용창 교수를 비롯해 강사진의 수준이 매우 높고, GIS에 대한 쉬운 이해와 실질적인 장비의 실습 등 유익한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서의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30명 정원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 교육 및 실무에 GIS를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활용능력을 체득할 수 있는 GIS 기초교육 및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배경과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공간정보 응용시스템의 활용능력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NGIS 및 GIS 관련 업무분야의 실천을 선도할 예정이다.

“평소 GIS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이번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힌 장철배 씨(인천시청 평가조정담당관실)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번 교육은 많은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위성을 활용한 해상도 높은 사진공학은 누구나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이를 통해 시의 정책적 기획수립 등 시정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문 강사를 비롯해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 프로그램

“지도를 만드는 기술의 현주소를 알리는 것이 이번 강의와 주된 목적이었다. 지도의 첨단 기술을 국가의 여러 계획에 활용하고, 더불어 실생활과 토목, 건설, 건축 등에 첨단 기술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와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정책 및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8월 9일 ‘수치지도와 공간영상정보’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친 이강원 강사(한국에스지티 대표이사)의 말이다. 강의는 동영상으로 제작된 3D 지도 등 첨단 지도를 소개하며 지도제작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주며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강원 강사의 ‘수치지도와 공간영상정보’를 비롯해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지도와 좌표변환’ ‘GIS개론’ ‘GNSS와 공간정보’ ‘ArcGIS활용 공간정보구조화’ ‘공간정보활용사례 및 기술동향’ ‘원격탐사와 방재활용’ ‘인천의 도시계획과 GIS활용’ 등 알찬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칠판과 영상 스크린, 참여자 ‘1인 1PC’를 통해 빠른 이해력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인 운영을 보여주었다. “본 교육과정은 GIS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기초 과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GIS 개념이해, 공간정보취득 신기술, GIS에 의한 공간정보구축, 지적재조사사업개요 및 GIS의 활용사례 등을 교육한다.

교육을 통해 공무원, 초·중·등 교원 및 산업체 임직원들의 공간정보지식 및 동기 함양과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교육의 담당교수이며 ‘GNSS와 공간정보’란 주제로 열띤 강의 선보인 이용창 교수는 무엇보다 앞서 참여자들의 ‘이해’를 교육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강의주제를 선정함은 물론, 참여자의 편의에도 세심한 배려를 선보였다. 또한 이 교수는 “인천, 부천, 시흥, 김포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수익사업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봉사차원의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번 GIS 교육은 알찬 프로그램과 전문 강사, 쾌적한 환경과 간식(음료, 과자, 떡 등), 1인 1PC 운용과 교육비·교재비 무료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또한, 이에 부응하듯 30여 명의 참여자는 강의 내내 진지하고 열정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끝으로, 남다른 배려와 열정이 가득했던 GIS 교육 프로그램이 이 교수의 말처럼 ‘지자체의 도시발전 및 최근 지적선진화사업 관련 행정 업무, 학교의 GIS 교육 및 산업체의 현장실무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무궁무진한 해저자원과 청정에너지를 품고 있는 바다. 그 바다를 선점하는 나라가 미래를 이끌어가는 21 세기에 인천대학교가 해양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뜻을 올렸다. 20여 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신설된 해양학도가 바로 그것. 광활한 바다만큼이나 세상을 무대로 그 꿈을 키우고 있는 해양학과를 만나본다.

2012년 신설된 해양학과

해양 전문가 양성의 인큐베이터



‘해양도시’ 인천의 중심,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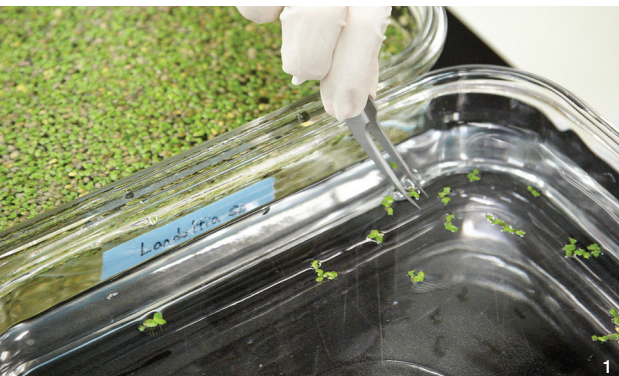
국제 교류의 관문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해양도시인 인천. 지리적 특성에 걸맞게 인천대학교에도 해양학도가 신설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실 해양학과의 경우 대학원 진학이 필요한 기초학문 분야로서 취업률이 높지 않은 학과 중 하나이다. 또 많은 우수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과 중 하나라 강점을 찾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천대학교 해양학과는 이미 오랜 시간부터 천천히, 그러나 탄탄히 그 토대를 마련해 왔다. 1994년 인천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부임한 한태준 학과장은 당시 시립대인 인천대학교에 해양학과 설립을 추진한 인물이다. 지역에서의 목소리는 물론 학내에서도 해양학과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여러 이유로 무산되었다. 2009년 국제화의 바람을 타고 해외 우수 대학과의 MOU가 진행되었다. 그 중엔 해양학으로 유명한 영국 플리머스 대학교와 스페인 말라가 대학도 포함돼 있었다.

“지금껏 적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학내에서도 해양대학 설립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때부터 해양대학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해양대학 설립을 추진하다, 그보단 학과를 먼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러 올해 해양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성을 인식한 때부터 신설까지 꼬박 2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고민의 깊이와 폭은 더했고 내실은 다져졌다. 가장 먼저 인천대학교 해양학과는 커리큘럼의 차별화, 즉 ‘해양환경의 유해성 분야’를 특성화해 다른 학교 해양학과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해양환경 오염으로 인해 바다 생태계는 물론 육지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기존 대학에서 해양의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도리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했다.

학기 운영 시스템 또한 남다르다. 1, 2학년 때 집중적으로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3학년이 되면 실험을, 4학년이 되면 각종 연



1 개구리밥을 이용한 연구 2 우리나라 최초로 ISO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된 해양오염진단기술 3 (주)그린파이오니아에서 김과 다시마를 원료로 개발한 화장품

구소로 파견돼 실무경험을 쌓고, 또 이를 글로 체계화 하는 과정을 구성돼 있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인천대학교가 자리한 인천지역에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서해연구소), 극지연구소 등 해양 관련 수많은 연구소들이 자리해 있는데, 이미 한태준 교수와는 수차례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어 어느 곳이든 원하는 곳으로도 파견이 가능하다. 취업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가능성 또한 크다.

“해양도시로서 인천이 갖는 특수함이 해양학과 신설의 큰 배경이 되었다면, 그 중심에는 인천에 위치한 많은 연구소와 더불어 송도지역에 삼성, 포스코, 셀트리온 등 IT·BT 관련 산업체가 자리해 있어 산·학·연 구조가 아주 잘 형성돼 있습니다. 실제 많은 연구소에서 좋은 학생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들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선 학위가 아닌, 유능한 인재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인천대학교 해양학과의 경우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래 하나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다

인천대학교 해양학과는 설립되자마자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바로 한태준 교수가 대표로 있는 인천대학교 자회사인 (주)그린파이오니아에서 최근 ‘파래를 이용한 해양오염진단기술’을 개발해 우리나라 최초로 ISO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된 것. 기존 수질조사의 경우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개별적으로 찾는 것으로, 각 오염물질에 대한 수치측정은 가능하나 그것이 하나로 모였을 때 발생할 시너지에 대해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한 것이 한 교수팀의 진단장치로, 오염도에 따라 파래 잎의 색깔이 변화하는 것을 이미지로 분석해 수질 오염은 물론 독성 정도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과정이 간편한데다, 파래가 오염도에 민감해 측정 결과가 정밀하고, 경제적이기까지 하다. 전문가들이 점친 경제적 부가가치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인천대학교 해양학과의 위상 또한 높아진 셈이다.

“저 역시 바라던 대학에 입학한 후 뚜렷한 목표 없이 방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교수님의 강의와 보살핌을 통해 학문이 무엇인지, 연구가 무엇인지 깨달은 뒤부터 학문하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저 열정을 가지고 지내다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교수라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제 경험처럼 해양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여기서부터가 꿈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고 싶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꿈과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해 주고, 그러한 꿈들을 사회에서 펼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놓은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미지의 바다를 눈앞의 현실로 만드는 미래의 주역들로 성장하는 데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구심점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한다.



격렬한 시합 후에 나누는 뜨거운 우정

인천대학교 럭비팀 'No-side'

셋, 둘, 하나 노사이드! 초록 잔디를 점령한 오렌지 군단이 우렁차게 파이팅을 외치자 8월의 무더위도 이들을 응원하려는 듯 뜨거운 태양 대신 시원한 바람을 불러 준다. 바람을 가르며 연습에 매진하는 오렌지 군단은 방향을 맞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인천대학교 체육대학 럭비팀 No-side 회원들. 모인 인원은 8명뿐이지만 우렁찬 목소리는 80명이 부럽지 않다.

승패보다 값진 스포츠 정신을 배우다

인천대학교 럭비팀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럭비선수 출신 김도현(동아리 회장, 운동건강학부 08) 회장을 중심으로 수업시간에 배운 럭비 과목에 흥미를 느낀 체육대학 선배들이 모여 2011년 3월에 결성한 2년차 새싹 동아리다. 회원은 여학생 5명을 포함해 총 20명 남짓. 동호회 구성원들은 모두 순수 아마추어로 가입 자격은 특별히 없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럭비를 배울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실제 김도현 회장을 제외하고는 회원들 대부분이 대학에 와서 럭비를 처음 접한 경우다. 하지만 지금은 럭비의 매력에 빠져 전도사이길 자처한다.

럭비 수업을 들으며 흥미를 갖고 있던 차에 럭비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가입했다는 한기준(체육학부 10) 학생은 럭비와 미식축구의 차이도 몰랐던 자신이 이제는 대회에도 나갈 정도로 실력을 갖췄다며 직접 해보면 그 매력을 알 거라고 말한다.

럭비라는 스포츠가 격렬해 보이지만 경기 후 상대방과 나누는 우정도 그에 못지않다며 럭비의 스포츠 정신에 흠뻑 매료된 김정욱(운동건강학부 08) 학생은 신사적인 스포츠 정신을 럭비의 매력 중 최고로 꼽는다.



회원들이 매력으로 꼽는 럭비의 건강한 스포츠 정신은 동아리 이름에서도 잘 나타난다. 동아리 이름인 노사이드(no-side)는 경기 종료 휘슬과 동시에 심판이 선언하는 구호로, 그때까지 땅과 먼지 속에서 뒤범벅이 되어 경기를 하던 선수들은 승자와 패자 없이 하나가 되어 상대를 격려하며 참다운 우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럭비는 누구를 이기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서로 경기를 즐기고 끝까지 매너를 지켜주는 것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김현상(체육학부 10) 학생은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럭비는 외관상 거칠고 과격하게 보이지만 상대에 대한 존중과 심판에 대한 복종, 그리고 선수들 간의 희생과 협동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기에 어느 스포츠보다 신사적임을 강조한다. 그 덕분에 럭비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모두 친구가 된다.

국경을 뛰어 넘어 소통을 하다

이런 럭비의 스포츠 정신은 경기를 통해서 더욱 빛을 발하는데, No-side는 정기적으로 펼쳐지는 대학 교류전이나 KTA 터치럭비 토너먼트를 통해 대학 간, 국가 간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KTA 터치럭비 토너먼트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영미권 외국인들과 아마추어 럭비팀이 있는 인천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육군사관학교 등 5개 대학 팀이 한자리에 모이는 럭비 축제로, 1년에 6~8회 열리는데 대회 때마다 100여 명가량이 참가한다. 일반 럭비와 달리 신체접촉 없이 공격권을 빼앗기 위해 최소한의 힘으로 터치해야 하는 터치럭비는 남녀노소 참여할 수 있어 더욱 인기다. 지난 7월 7일에는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터치럭비 토너먼트를 개최, 1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럭비가 영미권에서 대중화된 스포츠다 보니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스포츠를 통해 국경 없이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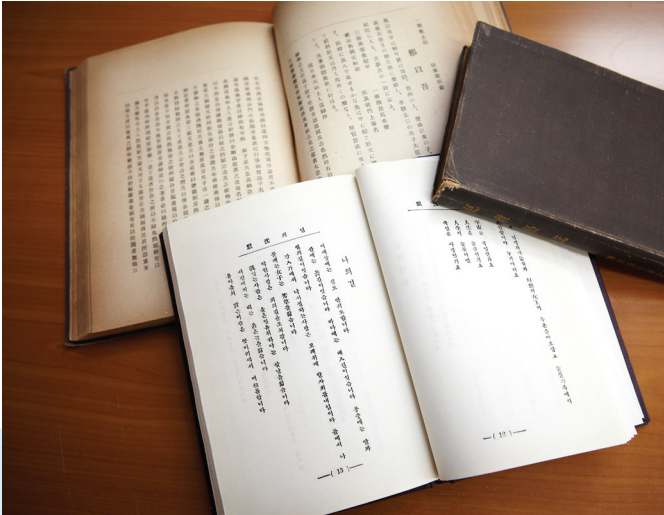
No-side는 KTA 터치럭비 토너먼트뿐 아니라 아마추어 럭비 동아리가 있는 대학 간 교류전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올 10월에는 인천대학교 · 고려대학교 · 서울대학교 · 연세대학교 · 육군사관학교 등 5개 팀이 함께하는 첫 리그전 ‘5univs’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김도현 회장은 첫 대회니 만큼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학기 중에 주 1회씩 꾸준히 연습해온 기본기를 바탕으로 그동안 쌓아 온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흥미진진한 대회가 될 것 같다고 말한다.

럭비를 통해 국내대학 및 주한외국인들과 소통하고, 대외적으로는 KTA 터치럭비 토너먼트와 5univs라는 무대를 통해 인천대학교 럭비 동아리의 색깔을 만들어 가는 No-side. 운동을 통해 넓게 소통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참다운 스포츠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올해 7월 인천대에서 있었던 '2012 KTA 터치럭비 토너먼트'에 함께 참가한 주한 외국인과 국제학교 학생들



故 류승국 박사 기증도서 등 희귀자료 소장

한국 유학과 철학계의 거목인 故 류승국 박사의 장서가 고인의 유지로 인천대학교 학산도서관에 기증되며 화제가 됐다. 류 박사의 아들인 류인모 인천대 법대 학장은 지난해 7월 류 박사가 평생 모은 책 1만 2,257권을 인천대에 전달했다. 기증된 책은 철학·역사·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데, 이 가운데 39권은 1950년 이전에 출판됐고,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1934)' 원본 등 102권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희귀본이다.

성균관대 유학대학장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을 지낸 故 류승국 박사는 을곡학술문화상(1978), 목련장(1988), 유교학술문화대상(1995), 을곡학술상(1999), 학술상(2003) 등

세상을 읽는 '감식안' 길잡이,

도원 류승국 박사 기증 자료실을 만나보다



지식 통섭의 산실, 대학 도서관이 진화하고 있다. 송도캠퍼스 이전 개관 3주년을 앞둔 학산도서관은 인천대 학생들은 물론 인천시민이 사랑해 마지않는 보물 같은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수많은 위인이 도서관 서가를 뒤적이며 지식을 쌓았고, 꿈을 키워왔다. 도서관이야말로 개인의 개별적 사고가 확장돼 거대한 지성의 힘을 발휘하는 산실일 터. 지금 당장 학산도서관으로 달려가 더욱 스마트해진 시스템을 활용하며 자기계발 비법을 배우는 것도 좋겠다.



을 수상한 당대 최고의 유학자이자 철학자이다. 인천대학교는 류 박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학산도서관 1층에 '도원 류승국 박사 기증 자료실'을 마련했다. 학술정보지원팀 배순희 팀장은 “한국 철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의 장서를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게 돼 기쁘다. 1만 5,000여 인천대학생과 지역주민들이 기증자의 장서에 실린 지식을 체득함으로써 그 가치는 몇 배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84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학산도서관은 지난해 7월 '기증도서 열람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010년 '더 많은 이용자와 함께 살아 숨 쉬는 도서관'을 목표로 교직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기증운동을 개진해온 결과, 인천시민 전재덕 씨가 기증한 1만 6,260권의 장서 등 지금까지 총 60,466권의 기증 도서가 열람실에 비치됐다. 일본 마츠야마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故 와타나베 아키오 씨의 경제서적 1,010권도 대한해협을 건너 이곳 학산도서관에 기증됐다.

이외에도 학산도서관은 그동안 교수들이 외부에서 수주한 용역프로젝트 보고서 자료실을 별도 공간으로 만들어, 차후 새로운 프로젝트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



니다. 전문사서를 전담 배치해 교수, 대학원생 등 연구자를 위한 타 대학도서관과의 상호대차서비스, 전자저널을 통한 원문제공서비스 등 주제전문서비스도 호평 받고 있다.

도서관 기부는 또 다른 지식공동체 형성의 시작

104평 규모의 테마도서관 Job Library를 빠뜨리면 섭섭하다. 인천대학교는 학산도서관 내에 취업관련 단행본 3,500여 권과 국내 100대 기업 및 중소기업의 사보를 비치한 Job Library를 개설해,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이는 한편 체계화된 취업준비를 도모하는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전적으로 부족했던 지역 주민들에게도 학산도서관은 단비 같은 존재다. 학산도서관 기증담당 이나영 사서는 “매주 2만 4,000여 명이 자료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되는 책의 양만 매주 2,700권에 이른다”고 귀띔했다. 학산도서관 이용자들은 자료실에 기증된 장서 한 권 한 권이 저마다 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단순한 이용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주체가 되어가는 변화가 있기까지, 학술정보지원팀이 많은 시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다.

학산도서관 운영자와 이용자의 꿈은 언제나 같다. 그 어떤 시설보다 밝고 크고 편한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 되길, 그리고, 꿈을 키우며 신나게 소통하는 공간 학산도서관에서 더 많은 학생이 한 뼘 더 성장하길 바란다.



5대 안경수 총장 이임식



4년간 총장직을 역임한 안경수 박사의 이임식이 지난 7월 27일 열렸다. 이날 행사는 송도캠퍼스 공연장에서 진행됐으며, 인천시의원과 시교육감을 비롯해 4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했다. 내빈 소개 이후 국민의례로 시작된 이임식은 안경수 박사의 약력소개와 업적소개에 이어 감사패 등이 증정됐다. 특히 교수와 조교, 직원과 학생 대표의 꽃다발 증정식 때는 참석자들의 박수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안경수 박사는 이임사를 통해 “인천대학교가 수도권의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대학으로,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약진하기를 소망한다”며 인천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었다.

인천대, 국립대학법인으로

첫 학생 모집 시작

2013학년도부터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하는 인천대학교의 첫 수시모집 전형이 시작된다.



모집정원은 전체 모집정원 중 50.7%인 1,359명(1차 679명 2차 680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인원이 선발될 예정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없으며 복수지원은 할 수 없다.

올해 지원을 통해 합격한 학생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의 첫 입학생이 된다. 수시 1차 모집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www.incheon.ac.kr)하면 된다.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0월 13일 이뤄지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3일이다. 2차 모집 접수는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받는다. 1단계 합격여부는 11월 29일에, 최종합격자는 12월 8일에 발표한다.

‘한은 통화정책대회’ 인천대, 지역 최우수상, 장려상에 이어 전국 동상 수상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2012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경기·인천·강원 지역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전국 결선에서는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 7월 24, 25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열린 지역대회에 출전한 인천대 금융안정팀(지도교수 함정호, 팀원 김준성·전 탁·박현욱·홍소영)이 최우수상을, 보리누름팀(지도교수 함정호, 팀원 한규용·전찬구·김윤주·나상미)이 장려상을 차지했다. 이어 8월 21일 서울본부에서 열린 전국 경시대회에 출전하게 된 금융안정팀은 최종 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로서 인천대는 3년 연속 지역대회 최우수상 수상, 3년 연속 전국결선대회에 진출함과 동시에 2010년 은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동상을 차지하며 학교의 위상을 높였다.

인천대 이태곤, 전국학생사격대회

남대부 금

제4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 남대부에서 이태곤(인천대)이 금메달 두 개를 따냈다. 이태곤(인천대)은 50m 권총 개인전 본선에서 553점을 쏜 뒤 결선에서도 92.8점을 쏘아 합계 645.8점을 마크, 팀 동료 장진혁(641.2점)과 이동춘(한체대·636.1점)을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이태곤은 장진혁, 장현제, 이종경과 팀을 이룬 단체전에서 합계 1,636점으로 한체대(1,630점)와 전주대(1,618점)를 꺾고 팀 우승을 견인,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인천대-스페인 말라가대 전자공학 연구 세미나



인천대학교는 지난 2010년 협정 체결 이후 활발한 교류중인 스페인 말라가대와 함께 공동 연구 세미나를 지난 7월 13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엔 양국의 연구진이 대거 동참해 향후 공동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대에선 김태현, 이기영, 전동근, 한태준, 홍윤식 교수가, 말라가대에선 펠릭스 로페즈, 프란

시스코 무뇨즈, 호세 라모스, 후안 테오도미로 교수 등이 참여했다. 또한 앞으로 1년간 전자공학과 생명과학 등 분야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함은 물론 연구결과를 SCI 등 국제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대 디자인학부, '제17회 한국디자인트렌드대전' 수상



'제17회 한국디자인트렌드대전'에서 인천대학교 디자인학부에서는 88점을 출품해 동상 3점, 특별상 2점, 장려상 3점, 특선 21점, 입선 30점 총 59점을 수상했다. 총 70개 대학에서 2,580점을 출품한 이번 대전에서 인천대는 사인디자인, 포장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 다양한 부분에서 수상을 하며 학교의 위상과 학과의 대외 인지도 형성에 기여했다. 수상자는 동상에 김준현, 우준형, 정재연 특별상에 구교준, 이지윤을 비롯해 장려상, 특선, 입선에 총 54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인천대 총학생회, 영유아 복지 후원금 전달
인천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 6월 15일 영유아 통합지원센터 시소와그네 인천연구센터에 후원금 190여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학생들이 지난 3월부터 매주 금요일 학교 내에서 운영한 후원주점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인천대 총학생회는 앞으로도 시소와그

네와 연계해 후원주점, 자원봉사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대,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여자 대학부 2연패

인천대는 13일 충북 충주시 호암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여름철중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 결승에서 한국체대를 3-0으로 꺾고 이 대회 2년 연속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모두 8개 대학이 출전한 여자대학부 단체전에서 인천대는 대진대를 3-0으로 가볍게 누르고 4강에 진출했다. 이어 인천대는 동양대를 맞아 역시 3-0 완승으로 결승전에 올라 라이벌 한국체대를 3-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따면서 2연패를 달성했다.

이영환 전 시의회의장, 대학발전기금 기탁
이영환 전 인천시의회의장이 대학발전기금 1,000여만 원을 인천대학교에 기부했다. 이영환 전 의장은 고인이 된 남편 박원준 씨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 박원준 씨는 인천시 산업국장, 경기도 시흥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이 전 의장은 "평소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셨던 고인의 뜻대로 인천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인천대, '2012 국가브랜드대상' 지역거점 대학 선정

인천대학교가 '2012 국가브랜드대상' 최고의 지역거점대학 부문에 선정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국가브랜드대상은 국가브랜드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하고 지식경제부등이 후원하는 상으로 인천대학교는 브랜드인지도와 브랜드 대표성, 만족도, 충성도, 글로벌경쟁력 부문



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브랜드는 국내외 최고의 미디어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LA타임즈, 통신사 등 해외홍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대 연구단, 국토부 과제 공모 선정

인천대학교 Water Grid 지능화 연구단 컨소시엄(이하 SWG 연구단)이 국토해양부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 사업 과제 공모에 선정됐다. SWG 연구단은 국토해양부의 건설기술 혁신 사업으로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가 참여하고 인천대학교 최계운 도시공학부 교수를 연구단장으로 인천 등 국내 물 문제 해결과 물 관련 분야 선진화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23개 기관과 80명이 참여하는 SWG 연구단은 인천시와 삼성물산, (주)포스코건설, (주)제일모직 등 대기업을 비롯해 인천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연구소 등이 참여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SWG 연구단은 4년간 총 320억 규모의 연구투자를 통해 수자원 자립율 30% 향상, 0.5kg 급의 능동 수자원 확보 기술의 실용화, 도시 용수 공급 시스템의 문제 발생 빈도 50% 감소 및 비상 물 공급 체계 구축, 도시 내 물 관련 운영 에너지 10% 감소 및 유지관리 비용 20% 감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대, 이대현 학생 MIT-GSW 인기상



인천대 창업지원단(단장 정영식 교수) 창업 동아리 맨마루 소속인 이대현(무역학부 4년) 학생이 최근 열린 MIT-GSW에서 '해충 방지용 렌턴'을 주제로 발표해 인기상을 받았다. MIT-GSW는 기업이 정신 지도자, 투자자, 학생 등이 참여해 기업가 정신 및 창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MIT 주최로 지난 1998년부터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행사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올해 행사에는 세계 35개국, 50개 대학 등에서 4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인천대, 서울대, 연세대, 숭실대 등 모두 15명이 대회에 나섰다.

인천대 김민영, 전국하계대학테니스연맹 전 여대부 3학년 단복식 우승

인천대 김민영이 하계대학테니스 여대 3학년 부에 단식과 복식 모두에서 우승했다. 김민영은 지난 7월 2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양구군 초롱이테니스코트에서 열린 제28회 전국하계대학테니스연맹전 여대부 3학년 단식 결승에서 김미영(강릉원주대)을 2-0(6-2 6-2)으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김민영은 복식에서도 인천대 최지혜와 조를 이뤄 김미영-김민정(강릉원주대)조를 결승에서 2-0(6-3 6-3)으로 따돌리고 정상을 차지했다. 여대부 단체전에서는 인천대가 안동대를 3-0으로 완파하고 4강에 올랐으나 한국체대에

1-3으로 패하며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주)CJ대한통운 대학발전기금 기탁

지난 5월 19일,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통상대학장실에서 (주)CJ대한통운 이현우 대표이사의 대학발전기금 기탁식이 있었다. (주)CJ대한통운 이현우 대표이사, 동북아물류통상대학교학과장 송상화 교수 등이 참석한 이날 기탁식에서 이현우 대표이사는 1,000만 원의 발전기금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진 이현우 대표이사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동문으로서 학교 발전에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인천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기탁동기를 밝혔다.

인천대, 강화교육지원청과 '참좋은방과후 학교' 교육기부 협약 체결

강화교육지원청과 인천대학교 '참좋은방과후 학교'는 지난 6월 4일 강화교육지원청에서 강화지역 방과후학교 강사 양성에 대한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인천대가 강화지역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화교육지원청은 학습 장소 및 홍보를 담당한다. 방과후학교 강사 양성 과정은 교양 및 전공심화 과정으로 120시간을 이수한 후 민간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하면 4주간의 실습을 통해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올해 강사 양성 과목은 미술, 사진, 과학이며 강화지역 방과후학교의 수요에 따라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대 창업지원단, 어린이 발명 창업 캠프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정영식 교수)은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공동실험실습관에서 '제2회 어린이 발명 창업 캠프'를 열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기업가적 소양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캠프에는 모두 90여명(1차 40명, 2차 50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캠프는 '도전! 창의성 대회', '나도 창업CEO', '생활 속에서 찾은 발명아이디어 쉽게 특허출원하기' 등 초등학생들이 발명원리를 배우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12년 공간정보 거점대학 인천대 선정

인천대학교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2012년 공간정보 거점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공간정보는 위성을 이용, 각종 지리 정보를 디지털화해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으로 통합 GIS(지리정보시스템)로 불리며 현재 토목, 건축, 교통, 도시계획 등 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대는 인천, 부천, 시흥지역 공무원과 교사, 산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 과정 2회, 응용교육 과정 1회 등 3번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수도권 공간정보 거점대학으로는 인천대 외에도 안양대, 이화여대가 뽑혔다.

인천대 등 5곳 저탄소 그린캠퍼스 선정

인천대학교가 계명대학교와 상지대학교 등 4개

대학과 함께 2012년 저탄소 그린캠퍼스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및 생활 속 녹색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대, 계명대, 상지대, 안양대, 전주비전대 등 5개 대학을 2012년 저탄소 그린캠퍼스로 선정해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6월 24일 밝혔다. 인천대학교는 건물별 에너지량 측정 시스템 도입 및 운영과 녹색경영 로드맵 수립 및 성과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동구 아동센터 어린이 170여 명, 인천대 탐방



지난 5월 26일, 인천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인천대에 초대되어 탐방 행사를 가졌다.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아동 170여명은 인천대를 방문, 대학 홍보 영상을 보고 캠퍼스를 둘러보며 대학탐방을 하고 기념사진도 찍으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은 보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남동구와 아동복지 증진에 관해 협약한 '인천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이 도움을 줬다.

정지송,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석권
인천대의 정지송이 제55회 전국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정지송은 지난 6월 17일 충북 충주 호암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대부 단식 결승서 김수연(군산대)을 2-0(21-14 21-16)으로 가볍게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단체전에서 팀

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정지송은 이로써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또한 정지송은 복식에서 김소영과 짝을 이뤄 출전해 은메달을 추가했다.

인천대, 한국대학토론연합회 전국대학생 토론회 준우승



지난 6월 30일 한양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제1회 한국대학토론연합회 전국대학생 토론회에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현남규(11학번), 정치외교학과 조지훈(06학번)이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총 13개 대학교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인천대는 B조에 소속, 1라운드에서 경남대학교를 이기고 2라운드에선 경희대학교를 이긴 후 B조 우승자로 4강전에 진출했다. 4강전에서는 한동대학교를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해 숭실대학교와 맞붙어 준우승을 거머쥔다. 한편, 정치외교 김우갑(11학번)은 대학생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대회를 빛냈다.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지난 9월 3일(월)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2012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 행사가 있었다. 재단의 장학금 전달식은 매년 2회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2학기에는 총 7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 최성을 재단법인 이사장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 사업은 무한한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것인 만큼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우리 인천대학교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인천대학교발전기금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자기역량을 발휘하여 세계 속에 인천대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2년 보직인사 명단

▲부총장 최병길 ▲대학원장 조중휘 ▲동북아물류대학원장 안승범 ▲교육대학원장 김복영 ▲행정대학원장 오용섭 ▲인문대학장 이지은 ▲자연과학대학장 강준희 ▲사회과학대학장 이윤희 ▲법과대학장 이충훈 ▲공과대학장 · 공과대학원장 정영배 ▲정보기술대학장 · 정보기술대학원장 김익수 ▲경영대학장 · 경영대학원장 나인강 ▲동북아경제통상대학장 이찬근 ▲예술체육대학장 한상철 ▲사범대학장 신양숙 ▲도시과학대학장 이찬식 ▲생명과학기술대학장 임경환 ▲교무처장 · 인재개발원장 박종태 ▲입학학생처장 채진석 ▲기획예산처장 주현태 ▲산학협력단장 황상순 ▲도서관장 김원재 ▲정보전선원장 최규남 ▲대학발전본부장 김재영 ▲시민대학장 제갈장 ▲기초교육원장 전인갑 ▲제물포캠퍼스 운영본부장 송병근

당신 삶에 큰 기둥이 되어 준 인천대학교

이제, 당신의 정성으로 세계 속의 명문으로 도약합니다.

발전기금 구분 및 용도

대학발전기금은 시설투자과 연구사업, 장학사업 등 전액 인천대학교의 미래를 위한 투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구분	용도
일반 발전기금	기부하신 분이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학에 일임한 기금으로, 대학의 중장기 제반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지정 발전기금	기부하신 분이 특정 대학(원), 학부(부)에 지정 출연한 기금
목적 발전기금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기금

기부 참여방법

자동이체(CMS): 기부자가 직접 은행에 가는 수고 없이 기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계좌로 매달 약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fund.incheon.ac.kr>)접속 후 신용카드로 발전기금을 기부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급여공제: 본교 교직원에 한하여, 매월 급여에서 약정한 일정액을 공제하여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납부: 대학에 방문하여 직접 기부하시는 방법입니다.

ARS 모금전화: 060-703-1212로 전화하시면 한 통화에 3,000원의 발전기금이 적립됩니다.

무통장 입금: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개설된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계좌로 입금 후 전화를 주시면 기부금 관련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1325-01-000611 (예금주 : (재)인천대학교발전기금)

예우 프로그램

구분	내용	PRESIDENT'S HONOR				PLATINUM HONOR	GOLD HONOR	SILVER HONOR	BRONZE HONOR	PARTNER SHIP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기부자 명예한정 및 예우	건물명칭 부여	○								
	홍상/존상 제작	○	○							
	부조상 제작	○	○	○	○					
	강의실명칭부여			○						
	사진동판 제작 (180mm×200mm)					○	○			
	사진동판 제작 (180mm×50mm)							○		
학교시설 이용편의	동판명패제작 (180mm×50mm)								○	○
	도서관 평생 이용	○	○	○	○	○	○	○		
기념품 및 간행물	주차장 무료 이용	○	○	○	○	○	○	○		
	감사패	○	○	○	○	○	○	○	○	
	기념품(생일/창립일)	○	○	○	○	○	○	○	○	
	정기간행물	○	○	○	○	○	○	○	○	○
	감사문	○	○	○	○	○	○	○	○	○
	개인달력 제작	○	○	○	○	○				

※상기 예우 프로그램은 후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성명(상호명)	동문 · 재학생	학과(부) 입학년도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학부모	학생성명	소속학과
E-mail	교직원	근무부서	직위
전 화	기업 · 재단	근무부서	직위
핸드폰	일반인	직장명	
주 소			
기부(약정)액	일금	원정 (₩)	

※ 해당되는 □에 √로 표시하고 세부사항을 적어주십시오.

지원분야	☐ 인천대학교에 위임 ☐ 모금사업 (아래 모금사업 목록 참조) [] ☐ 지원기관 지정 (단과대학, 학과(부), 연구소 등) []					
납부기간	☐ 일일납부 (20 년 월 일)			☐ 분할납부 (20 년 월 ~ 20 년 월까지) 매월 원씩(회)		
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농협 1325-01-000611 (예금주 : 재단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 자동이체 (CMS)		은행명 : 결제일 : ☐ 5일 ☐ 15일 ☐ 20일 ☐ 25일 계좌번호 :			
	☐ 교직원 급여공제		공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까지			
기부출연 권유자	※ 기부권유자 명기 시 반드시 기부자께서 자필로 권유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 전화(휴대전화) :					

위와 같이 인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인천대학교 총장
(재)인천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귀하



인천대학교
University of Incheon

국립대학의 날개를 달고,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

서른세살의 젊은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이라는 큰 뜻을 펼쳤습니다.

송도 신 캠퍼스 이전과 국립대학 법인으로의 전환을 발판으로,

인천대학교가 동북아 중심의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합니다.

세계 100대 대학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인천대학교가 세계를 무대로 큰 꿈을 펼칠 미래의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2012년 국가브랜드대상
최우수 지역가점 대학부문 수상

★★★★★ 2011년 대학 기관평가 인증 • 2011년, 2012년 2년연속 대한민국 참교육 대상 수상 • 2011년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 수상
• 2011년 대한민국 글로벌 CEO 수상 • 2011~2012년 한국을 빛낸 히트상품 선정



인천대학교
University of Incheon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주소

□□□-□□□□

우편요금
수신자부담

발송유효기간
2011.2.23~2013.2.22

서울 여의도우체국
송인 제2341호

받는 사람



인천대학교
University of Incheon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12-1)

406-772

펼칠하는 곳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인천대학교를 이끄는 큰 힘이 됩니다

무동장 후원하기 농협 1325-01-000611 예금주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ARS 후원금 서비스 060-703-1212 한 통화당 3,000원

2012년 5월 ~ 7월

발전기금 기부자 현황

100만원 이상

성명	관계	기부액	성명	관계	기부액	성명	관계	기부액	성명	관계	기부액
잉글리쉬앤	기업	10,900,284	김영관	교수	300,000	이진성	직원	99,000	이효정	동문	60,000
대한통운(주)	기업	10,000,000	이갑영	교수	300,000	장서은	직원	99,000	김인영	동문	60,000
행정대학원 고위과정(31대) 총원우회	동문	10,000,000	이병수	교수	300,000	정경란	직원	99,000	우종택	교수	50,000
김교홍	동문	6,732,870	이상락	교수	300,000	정종환	직원	99,000	양해민	학생	40,000
공준환	직원	1,923,000	이찬식	교수	300,000	지은미	직원	99,000	박일총	직원	30,000
송용근	직원	1,668,000	이종열	교수	300,000	추승호	직원	99,000	김종인	직원	30,000
공용득	직원	1,518,000	윤찬원	교수	300,000	한상화	직원	99,000	최현아	동문	30,000
최계철	직원	1,518,000	신동욱	동문	300,000	한상훈	직원	99,000	한현미	개인	30,000
변윤식	교수	1,500,000	함정호	교수	300,000	한용갑	직원	99,000	임경남	개인	30,000
이광준	직원	1,263,000	이승민	동문	300,000	홍경수	직원	99,000	서상범	직원	30,000
김영주	직원	1,263,000	이균익	동문	300,000	홍광기	직원	99,000	박정연	직원	30,000
김상중	직원	1,263,000	이은주	교수	300,000	황선용	직원	99,000	김재철	동문	30,000
김홍대	직원	1,263,000	최두원	동문	300,000	황선조	직원	99,000	김현진	동문	30,000
송태영	직원	1,263,000	박창화	교수	300,000	우창기	교수	90,000	김성은	동문	30,000
음창a윤	직원	1,263,000	이재성	동문	300,000	안춘순	교수	90,000	강현자	동문	30,000
이상동	직원	1,263,000	김기웅	교원	300,000	김천주	교수	90,000	김은희	동문	30,000
임승빈	직원	1,263,000	충남집	기업	300,000	장인우	교수	90,000	성정옥	동문	30,000
최재웅	직원	1,263,000	오철민	동문	300,000	박은경	교수	90,000	유병순	동문	30,000
(주)태영건설	기업	1,000,000	김주영	동문	200,000	신호수	교수	90,000	박정희	동문	30,000
			신원태	교수	150,000	한상철	교수	90,000	홍주학	동문	30,000
			김승환	직원	150,000	조한창	동문	90,000	신천수	직원	30,000
			한상혁	직원	150,000	조윤구	동문	90,000	이정희	직원	30,000
			박종욱	교수	150,000	신동태	동문	90,000	강병민	동문	30,000
			권기체	직원	150,000	임찬옥	직원	90,000	박도균	동문	30,000
			김순옥	직원	150,000	윤영돈	교수	90,000	윤병선	동문	30,000
			우인성	교수	150,000	윤덕영	동문	90,000	김치용	동문	30,000
			김숙진	동문	150,000	강경태	동문	90,000	이병기	동문	30,000
			유정훈	동문	150,000	김정곤	교원	90,000	한상길	동문	30,000
			임주택	동문	150,000	김규만	동문	90,000	이종훈	동문	30,000
			윤용	동문	150,000	이진욱	동문	90,000	문종욱	동문	30,000
			최호규	동문	150,000	임순	교수	75,000	김지훈	동문	30,000
			김진우	동문	150,000	유혜경	교수	75,000	신현호	동문	30,000
			김병훈	동문	150,000	김영구	교수	60,000	배기람	동문	30,000
			문화중	동문	150,000	김현진	교수	60,000	이상봉	동문	30,000
			김평현	동문	150,000	오복자	동문	60,000	이두영	동문	30,000
			최인수	직원	99,000	손정숙	직원	60,000	조철영	동문	30,000
			김연자	직원	99,000	곽용성	직원	60,000	이성호	동문	30,000
			김주일	직원	99,000	김태영	직원	60,000	기종섭	동문	30,000
			박상곤	직원	99,000	최명중	직원	60,000	추녀영	동문	20,000
			박형의	직원	99,000	유현국	동문	60,000	최인한	동문	20,000
			서원형	직원	99,000	이동영	동문	60,000	윤희량	동문	15,000
			신영애	직원	99,000	김희강	동문	60,000	정수민	동문	10,000
			이지형	직원	99,000	고민정	교원	60,000			

100만원 미만

성명	관계	기부액	성명	관계	기부액	성명	관계	기부액	성명	관계	기부액
이선식	직원	684,000	박종욱	교수	150,000	신동태	동문	90,000	강병민	동문	30,000
한신자	직원	684,000	권기체	직원	150,000	임찬옥	직원	90,000	박도균	동문	30,000
배순희	직원	684,000	김순옥	직원	150,000	윤영돈	교수	90,000	윤병선	동문	30,000
강연제	직원	684,000	우인성	교수	150,000	윤덕영	동문	90,000	김치용	동문	30,000
김종호	직원	684,000	김숙진	동문	150,000	강경태	동문	90,000	이병기	동문	30,000
박노신	직원	684,000	유정훈	동문	150,000	김정곤	교원	90,000	한상길	동문	30,000
박창남	직원	684,000	임주택	동문	150,000	김규만	동문	90,000	이종훈	동문	30,000
소용	직원	684,000	윤용	동문	150,000	이진욱	동문	90,000	문종욱	동문	30,000
손하연	직원	684,000	최호규	동문	150,000	임순	교수	75,000	김지훈	동문	30,000
전병준	직원	684,000	김진우	동문	150,000	유혜경	교수	75,000	신현호	동문	30,000
정창기	직원	684,000	김병훈	동문	150,000	김영구	교수	60,000	배기람	동문	30,000
최형우	직원	684,000	문화중	동문	150,000	김현진	교수	60,000	이상봉	동문	30,000
한재익	직원	684,000	김평현	동문	150,000	오복자	동문	60,000	이두영	동문	30,000
허창렬	직원	684,000	최인수	직원	99,000	손정숙	직원	60,000	조철영	동문	30,000
황의석	직원	684,000	김연자	직원	99,000	곽용성	직원	60,000	이성호	동문	30,000
배양섭	교수	600,000	김주일	직원	99,000	김태영	직원	60,000	기종섭	동문	30,000
조중휘	교수	450,000	박상곤	직원	99,000	최명중	직원	60,000	추녀영	동문	20,000
이재석	교수	300,000	박형의	직원	99,000	유현국	동문	60,000	최인한	동문	20,000
박인호	교수	300,000	서원형	직원	99,000	이동영	동문	60,000	윤희량	동문	15,000
손천택	교수	300,000	신영애	직원	99,000	김희강	동문	60,000	정수민	동문	10,000
			이지형	직원	99,000	고민정	교원	60,000			



송도캠퍼스 406-7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12-1)
제물포캠퍼스 402-808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165 (도화동 193-6)
www.incheon.ac.kr